

감사원, 建設環境改善 및 品質革新을 위한 94監査活動과 95監査方向

부실공사근절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모든 건설 참여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유산상속은 물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건설인의 신뢰성과 기술능력 향상으로 국제 사회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건설산업 현황

[1] 건설산업의 位相(93년)

대 G. D. P(국내 총생산)비중이 80년 8.0%에서 13.6%로 증가 되었으며, 고정자본 형성액은 80년 55.7%에서 65.8%로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총 취업인구의 8.5%인 1,680천명이며, 건설업체수는 '94년8월 기준으로 2천3백13개사이며 이중 전문건설업체수는 1만 1천8백96개사이다.

[2] 건설공사 발주현황

| 구 분 | 계 | 공공 (%) | 민간 (%) | 기타 (%) |
|-----|--------|--------------|--------------|---------|
| 92년 | 33,510 | 14,086(42.0) | 19,375(57.9) | 49(0.1) |
| 93년 | 43,236 | 16,451(38.1) | 26,729(61.8) | 56(0.1) |

[3] 국내 기술수준

- ① 소프트웨어 : G7의 50~70% 수준
- ② 플랜트 기술 : G7의 50% 수준
- ③ 시공 기술 : 전체 매출액의 90%
- ④ 노동생산성 : 일본의 70%

■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당면과제

[1] 책임시공의지 및 장인정신 회복

적당주의와 눈가림식 시공 및 감리풍토가 만연하며, 3D직종 기피현상으로 시공수준이 저하되고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간의 책임전가 행위가 성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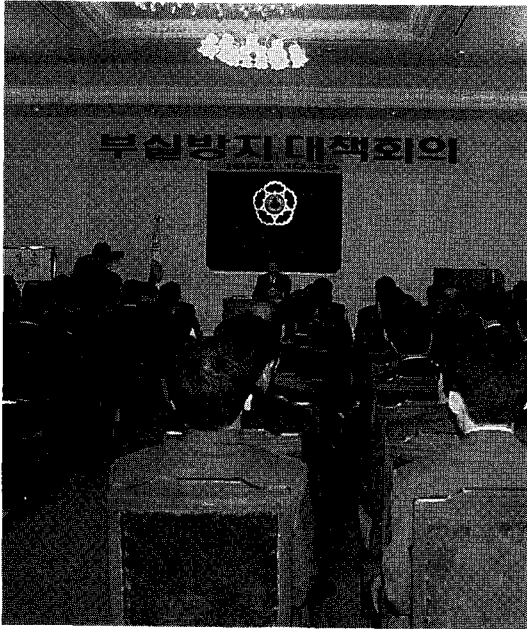
[2] 건설기술개발 및 활용도 제고

기술경쟁이 도외시된 가격경쟁입찰에서의 덤핑 및 담합입찰의 성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 사용 기피 등 신기술에 대한 무지와 구태의연한 시공관행이 공사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3] 전문건설업자 보호·육성 절실

① 공사의 품질을 사실상 전문건설업자의 성실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시장 구조가 원·하청간의 수직적 종속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② 건설면허 개방에 따른 무자격자의 난립과 저가하도급 및 대금지연 등 부당하도급 행위의 성행, 손실 및 부실 발생시 책임전가 등이 공사부실을 유발하고 있다.



[4]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건설환경혁신 필요

① 성실시공유도 및 품질관리 제고보다는 부조리방지 명목의 미봉적 제도보완에 급급하면서도 보완제도가 또다른 부조리를 유발하는 등 근본적 치유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② 건설환경개선 및 품질혁신으로 부실공사근절을 물론 건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를 향한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 94건설분야 감사활동 결과

[1] 감사추진방향

① 94년을 『부실공사방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집중 감사를 실시, 공사관계 책임자회의 개최와 부실공사관련 VIDEO TAPE·화보제작 배포 등을 통해 전건설인의 의식개혁 동참 유도

② 부실공사를 망국적 폐습으로 규정하고 부실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한 상시 감사체제 구축 및 심층·집중적인 품질감사계획을 수립·추

진

③ 감사결과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관련공직자, 설계·시공·감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고발·면허취소·영업정지 등 일벌백계의 엄벌로 강력제재 조치하여 부실공사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전향적 인식 확산

[감사방법]

① 심층감사를 위한 정밀검증기기를 활용하여 물량위주에서 정밀한 공사품질감사로 전환, 감사결과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공인검사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② 부실공사·부실시공업체·부실설계자 등에 대한 자료의 전산화의 공사현장관리에서 준공 후 하자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추적감사실시

[감사결과]

① 총 70개 사항에 대한 감사(실지감사 : 31개 사항, 확인감사 : 39개 공사현장)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운영실태를 실시해서 총 7백 34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

- 건설업 등 면허취소 : 3개사
-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21개사
- 고발 : 58건
- 국가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 : 24명

② 공사입찰·계약제도, 기술용역입찰·계약제도, 전문건설업자 보호·육성제도, 건설기능공 육성관리제도, 민영주택 품질확보제도, 공사감리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 대안(70개 사항)을 제시해 개선 권고

③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업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잡시공·불합격자제사용·부족시공 등 전극대적 부실시공 사례 발생

- 총 지적건수의 56.1%(421건)가 공사부실관련(93년 : 총 지적건수(561건)의 27.9% 상당 157건)

- 관계공무원 징계·문책·고발 : 106명
- 부실시공이 대부분 시공자·감리자의 주의 소홀로 발생

부실공사 원인 비교

| 원 인 별 | 건수(건) | 비율(%) | 관련공무원 문책 |
|---------|-------|-------|----------|
| 계 | 412 | 100 | 106명 |
| 불량자재사용 | 86 | 20.9 | 10명 |
| 조 잡 시 공 | 215 | 52.2 | 60명 |
| 부 족 시 공 | 55 | 13.3 | 9명 |
| 기 타 | 56 | 13.6 | 27명 |

건설관계자의 독단의 의식전환 필요

④ 총 지적 7백34건수의 10.9%(80건) 상당이 설계(변경) 잘못으로 구조안전 지장과 감리부실 등으로 공사의 근원적 부실초래사태가 많다. 또한 공사입찰·계약제도, 전문건설업자 보호·육성제도, 기능공 육성·관리제도, 공사감리제도 등의 불합리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95건설분야 감사활동 방향

[1] 감사목표

95년 부실공사 근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건설환경개선 및 품질혁신의 해」로 선언, 책임 시공풍토 조성, 장인정신 회복의 전기 마련과 정부의 부실공사 근절 시책에 업계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다수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건설부조리 일소에 감사역량을 집중시킨다.

[2] 중점추진과제

① 설계부실·시공부실·감리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벌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담합입찰·면허대여·불법하도급 발본색원과 공사계약, 기성·준공검사, 설계변경 등의 관련부조리와 공사부실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사관계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한다.

② 주요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설계·적정시공여부를 정밀감사하고, 사용중인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도 강화하는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한다.

③ 기초건설자재의 품질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인 등 불량건설자재의 유통을 근절시킨다.

④ 공사비 적산제도 등 성실시공 저해요인의 제거와 부당하도급 근절 전문건설업자 보호·육성제도의 지속적 보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비합리적인 시방서의 개선 등 불합리한 건설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촉구한다.

[3] 감사추진방법

① 감사대상 : 사고발생시 인명피해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물 공사와 상습 부실공사업체·무능력감리자 투입공사, 저가입찰·부당하도급 시행공사 및 설계변경 다발공사, 유지관리가 부실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② 감사방법 : 사업별 전문·전담 감사반을 편성해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고, 부실설계·시공·감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전산관리체계와 외부전문가 및 시험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질비리·다수부처 관련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규모 감사인력 투입 등 집중합동감사 실시

[4] 감사결과외 처리

종래의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상습·반복업체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하는데 업체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관련 기술자 개인에 대하여도 자격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 一罰百戒로 처분을 요구한다.

반면 성실시공 등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불합리한 공사관련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한다.

주공 우수시공업체 선정

설비부문 上一機工, 成海企業 선정

주택공사(대표 金東圭)는 건전한 시공풍토 조성과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건설공사를 준공한 219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질 및 전반적인 현장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설비부문 上一機工과 成海企業 등 2개사를 비롯 토건부문 大昌企業, 明知建設, 金剛綜合建設, 日新振興建設 등 4개사 전기부문 制宇電氣, 大韓電設, 通光電設 등 3개사 통신부문 明電社 등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 지난 3월 21일 본사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주공은 이들 10개 우수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도권등 대도시지역의 아파트건설공사에 지명 경쟁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거나, 지명경쟁 입찰에서 탈락된 업체는 일반경쟁 입찰에서 수주한 1건 공사에 대하여 20% 상당의 선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공은 또 이번 시공평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한 國際綜合土建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시설공사 입찰에 1~2개월간 참여를 제한시켰다.

2개월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는 ▲ 토건부문 國際綜合土建, 井邦綜合建設, 美林建設과 ▲ 전기부문 大一電力, 新亞電氣工業社, 曉林企業 ▲ 통신부문 錦山電子通信 ▲ 설비부문 姜一設

備 등이며 1개월간 제재를 받은 업체는 ▲ 토건부문 國際土建 ▲ 설비부문 新林綜合設備 등이다.

주공은 이번 시공평가결과 시공질은 뛰어나나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 토건부문 三星重工業과 ▲ 전기부문 新英電氣 ▲ 통신부문 泰盛電氣通信 ▲ 조경부문의 솔경지건설조경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84년부터 주공은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단지 선정에만 그치고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시상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책임시공풍토 조성에 앞장섰다.

주공은 또 우수업체의 선정은 물론 품질이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병행하므로써, 업체의 사기진작과 함께 시공의 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시공풍토 조성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 설비부문이 처음으로 선정되어 설비업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설비업계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과 더불어 우리 협회가 3년전부터 주공에 여러차례 건의한 것을 주공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주공은 우수시공업체 선정작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우 多數, 多回の 크로스 체크 과정을 통해 선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주공의 시공평가규정에 의거 시공과정 평가 [옥외기계 2회 (시공과정 80%, 시운전)] 및 현황조회, 준공상태평가(공사 준공후 30일 내외 시점에서 평가표에 의거, 시행), 종합평가(시공과정 평가, 준공상태 평가를 종합한 점수로 상위 및 하위 15% 또는 우수시공업체, 하위시공업

체 선정 예정수의 3배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업체가 시공한 공구에 대하여 평가표에 의거, 시행)의 과정을 통해 선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수시공업체는 종합점수 상위업체 순으로 평가대상업체수의 10% 이내에서 선정되며, 현황조회 결과 결격 사유(▲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 하자를 발생한 자 ▲ 입찰참가 제한중이거나 제한을 받고 제한만료후 5년이 경과치 아니한 자 ▲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있는 업체는 우수시공업체 후보에서 제외된다.

또한 품질하위업체의 선정도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총 평가대상 공구수의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이밖에 3년간의 공사관리를 포함, 공사 수행 태도, 안전관리, 장비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시공 하자 및 민원, 보수보증금 집행 등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등도 점검하는 등 업체의 도덕성도 평가 대상이 된다.

신용길 공사지도부장은 "이 제도는 매년 실시되는 것인만큼 시공만 잘하면 매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계 스스로가 저가투찰을 지양해야 품질시공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것은 곧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투찰 자제를 촉구했다.

주공은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설비부문의 경우 우수시공업체를 3개사로 선정함을 비롯, 사전입찰심사제도 시행시 가점을 주는 등 특전을 부여하여 보다 나은 시공품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주공은 세계화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 국제화된 시방서 마련등 관련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건은 또 다시 건설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연이어 터지는 부실공사로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거둬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제도의 개선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생리상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슬뚜껑 보고도 놀라는 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설비업계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타산식적으로 삼아 스스로 행하는 건설시공만이 각종 건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건설업계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것 이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21일 주택공사에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상일기공과 성해기업을 알아 본다.

(株) 上一機工

몸에 배어있는
자연스런
시공으로 승부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시공원칙

"그저 다른 시공현장처럼 했을 뿐,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 없는데 상을 주니 오히려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산본지구 옥외 공동구 기계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한 공로로 주공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상일기공의 劉相烈 사장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80년대 중반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핵공단 G/U 4차 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비롯 방사성 고화폐기물시설 설비공사, 핵연료재변환시설 장비설치공사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공사를 도맡아 할 정도로 상일기공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력보다도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시공원칙 때문이라고 우수시공업체 선정 이유를 분석한다.

이러한 시공원칙은 유 사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하지만 직원들 스스로 몸에 배어 있어 자연스런 시공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일은 저절로 해야지 어거지로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유 사장의 철저한 원칙론을 직원들이 잘 따라준 것에서 기인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와함께 부분모작을 하지 않는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한 결과 상일기공의 현장은 아무리 바쁜 공기일정이라도 부분모작을 찾아볼 수 없다.

부분모작은 공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품질이 떨어져 결국은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고 회사의 이미지만 손상시키게 되므로 유 사장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퇴수겸용 수도꼭지 개발

또 하나, 상일기공의 자랑을 들라면 끊임없는 공법의 개선이다.

엔지니어 출신 오너답게, 불편한 것은 과감히 고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 사장의 성격이 끊임없는 공법 개선을 해 온 원동력이다.

따라서 상일기공이 개발한 것만 해도 꽤나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파방지를 위한 퇴수겸용 수도꼭지의 개발이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급수시설의 동파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의 급수시설은 퇴수가 잘 되지 않는 구



(주)상일기공의 유상렬 사장

조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동파 발생이 잦으며 사용자의 불편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상일기공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연구한 결과 2년전 퇴수겸용 수도꼭지를 개발, 지난해부터 시판에 나서 설비업체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퇴수겸용 수도꼭지는 급수의 개폐수를 단 열벽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시에는 관을 따라 통수가 되며 급수차단시에는 관 내부의 잔류수가 배출되지 않으므로 뒤쪽지 부분에 장착된 공기 유입구를 통하여 공기를 유입시켜 관 내부의 진공상태를 파괴시킨다.

보통의 수도꼭지는 낙하식 디스크여서 1차축의 퇴수로 인한 진공이 생기면 디스크가 시크의 구멍을 막게 되므로 공기의 유입이 불가능하여 퇴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수겸용 수도꼭지는 확실한 퇴수는 물론 밸브와 수도꼭지의 일체형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나사와 용접개소를 대폭 줄여서 시공상의 인건비 및 자재비가 대폭 절감(1세대당 2~3만원 선 절감)될 뿐만 아니라 하자발생요인이 감소와 공기단축 효과의 부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퇴수밸브 및 퇴수 콕크의 벽하단부

들출에 의한 외관상의 문제점까지 해결하였고, 일반 수도꼭지와 동일하여 사용이 간편하다.

상일기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음용수용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로 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음용수 배관재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재료로 할 것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음용수 배관재료도 인정을 받았다.

국제화시대에 대비, 조립식 공법 체제 도입

지난 83년부터 대전에 소규모의 공장을 운영 하기 시작한 상일기공은 지난해부터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화에 대비 하기 위한 행보로서 고품질의 시공만이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유 사장의 신념 때문이다.

“향후 설비업체가 가야할 길은 현장에서의 작업을 되도록이면 생략하는 조립식 공법”이라고 단언하는 유 사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조립식 공법으로의 전환에 돌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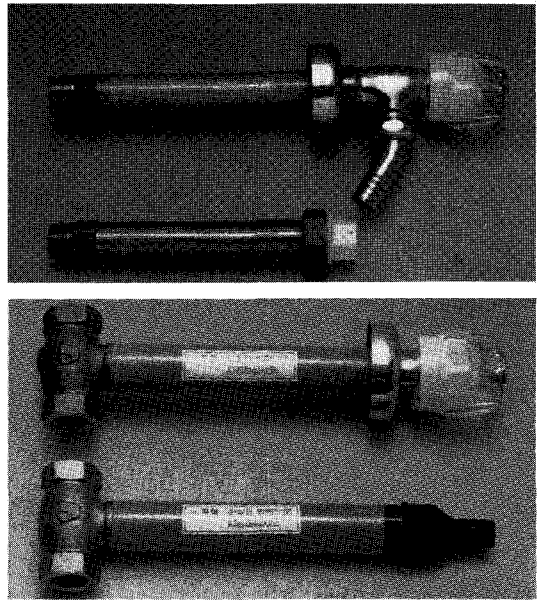
이와함께 앞으로 공장의 규모를 서서히 늘려 시공과 더불어 기자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상일기공은 상위그룹에 랭크될 정도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그 당시 20~30억이었던 수주액과 같이 요즘에도 20~30억을 고수하고 있다.

그저 외형만 쫓는 방만한 경영은 무리라고 생각한 유 사장은 항상 10개 현장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적정선만 유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현장은 관리능력에서 벗어나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0년도 주택 2백만호 건설이 실시되면서 신도시 아파트 공사 붐이 일어났을 때도 상일기공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었



상일기공이 개발한 퇴수검용 수도꼭지 및 퇴수밸브

다.

건설공사 물량이 많을 때는 실익이 적어진다는 판단과 함께 실속이 없는 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유 사장의 원칙 때문이었다. 이 생각은 적중했다.신도시 건설의 열풍으로 몰아닥친 기능인력난과 자재파동 등 건설업체가 몸살을 앓았던 시절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었다.

상일기공은 지난 80년 상일설비로 출발,90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상일기공으로 제도약 했다.법인전환시 이미 상일설비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상일기공으로 상호를 바꾼 것이다.

상호가 비슷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 상일기공은 전자에 속한다.

‘청계천 자재상들에게 물어보면 그 회사의 신용도를 알 수 있다’는 풍문이 입증하듯 상일기공은 결재일을 한번도 어긴 적이 없을뿐 아니라 이제는 자재상들이 아예 믿고 자재를 대줄 정도란다. 이러한 신용있는 회사가 가끔은 부실한 회사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때로는 공사가

지 뒤바뀌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곤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가투찰에 의한 공사로 인해 상일기공이 곤혹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장은 덤핑수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고개를 젓는다.

덤핑은 자신의 회사는 물론 남까지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설비업계 전체를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 지하철 사고같은 대형 재난을 초래 한다고 강조한다.

단 한 건의 공사라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을 때 큰 힘을 얻는다는 유 사장은 일부 주식을 직원들에게도 공개, 직원과 함께 공동경영에 힘쓰고 있다.

과거에는 1인 3역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유 사장은 영역에 상관없이 동분서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병치료 때문에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란다.

“더 멀리 뛰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하는 유 사장의 말 속에서 결코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튼실한 상일기공의 미래가 엿보였다.

成海企業(주)

내집 짓는
정성으로 시공

회사의 이득보다는 명예를 중요시

정밀을 요하는 제약업체의 클린룸 설비공사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해기업(대표 金成烈)이 부천 중동 옥외기계 공동구 공사

를 통해 주공의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설계대로 시공하려 한 흔적과 특히 지역난방에서의 자동제어설비의 중요성이 인정돼 수상하게 된 것으로 성해기업은 보고 있다.

부천 중동의 공사는 예기치 않게 저가투찰이 되어 주공측으로부터 매우 염려를 받았던 곳이라, 한마디로 시작부터 골치아픈 곳이었다..

이미 이득을 보기는 틀렸다고 판단한 성해기업은 명예라도 살리자고 단단히 결심한 결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저가투찰이만큼 혹시나 하는 우려때문에 감독관의 점검을 유난히도 많이 받았던 곳이지만 성해기업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서 중동 현장은 7%정도의 손해를 남기고 마무리 지어졌으나, 결국은 우수시공업체 선정으로 이를 상쇄시켰다.

성해기업의 이번 수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천 중동 현장소장을 맡았던 최진용 차장(32세)을 만나고 보니 성해기업이 내집 짓는 정성으로 시공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최 차장을 종합건설업체에서 스카웃 해 올 정도로 김성열 사장의 능력도 돋보였지만, 그의 싱싱한 젊음과 활기 넘치는 자신감에서 성해기업의 미래가 한층 밝아 보였다.

“현장소장의 역할이 현장에서의 맥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는 최 차장은 젊은 세대에 속하는 그 인지라 기능공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기능공들의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적정물량으로 고품질 시공

기계과 출신에, 현장 기사의 길부터 걸어왔던 김성열 사장은 완벽한 시공을 꿈꾸는 기술인으로 매우 꼼꼼한 편이다.



성해기업(주)의 김성렬 사장

그는 현장 하나하나의 특성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하기 때문에 비록 일은 늦으나 결과는 빠르다. 이것은 곧 “하자발생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는 첩경인 것”을 김성렬 사장은 직원들에게 누누히 강조한다.

평소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간직하고 있는 그이지만 업무에 들어가면 간간하기로 소문나 있다.

특히 하자발생의 경우 정상이 참작되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과약에 있어 감점의 대상에 들 정도로 하자에 대한 판리는 엄격하다.

김 사장이 현장을 방문하면 시공상태를 꼼꼼하게 둘러본다. 맘에 들지 않는 곳이 있다거나 잘못 시공된 것이 있으면 즉시 지적하고 이것은 반드시 재시공에 들어간다. “그것이 오히려 하자발생의 원인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김 사장은 일축한다. 얼렁뚱땅 시공 했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그가 현장기사 시절부터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성렬 사장은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살자”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인 만큼 성해기업은 신용을 생명으로 한다.

삼진계약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도 재시공해준 경험이 있다. 물론 이것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설계상의 잘못으로, 배관의 관경이 토출량보다 적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었다.

올해는 적정물량만 가지고 최고의 품질을 시공할 계획이다. 무리한 수주는 결국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 저가수주는 한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기술 자체에는 노하우가 있으나 종합건설업체에 예속되어 있다보니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워나가기가 힘든 현실이어서 전문건설인들을 우울하게 한다고 지적하는 김 사장은 다행히도 “최근들어 하도급 개념이 협력업체로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반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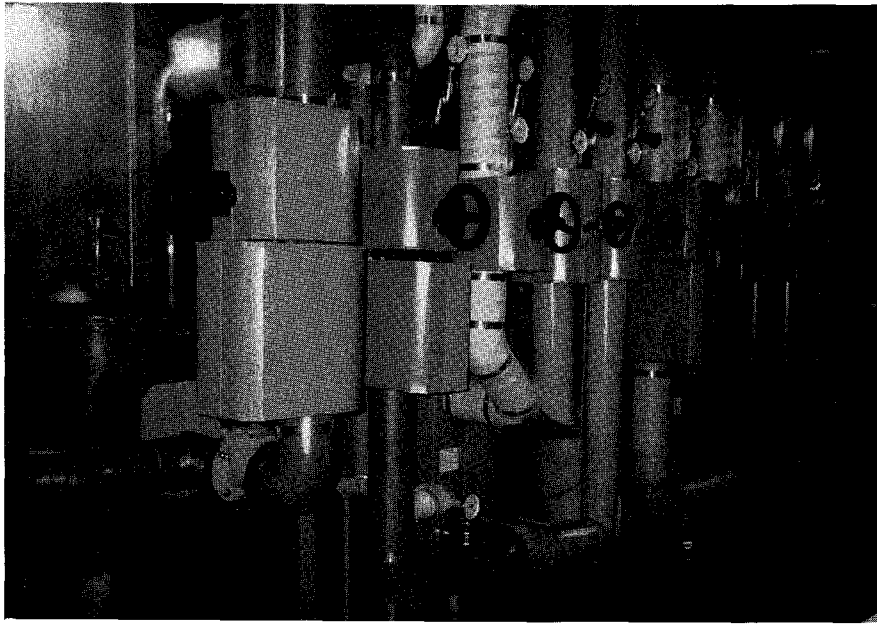
최근들어 회사운영에 가장 힘든것은 인력난이라고 김 사장은 단언한다.

지난 80년대 말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 노임은 올랐으나 능률면에서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는 김 사장은 기능공들이 제 값에 제대로 일만 해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성해기업이 매년 전문대생 2~3명과 공고 졸업생 10여명 정도를 받고 있으나 1~2년 후 남는 사람은 고작 한두명일 정도로 기능인력간의 자리 이동은 심한 편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김 사장은 “협회 차원에서 관리대장수첩을 만들어 기능인력의 이동에 정보제공이 된다면 인력난에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의 면허가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근들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고충의 하나로 꼽는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면허개방이 중요한 것이



부천 중동
옥외기계설비공사 기계실

아니고 자격요건이 안되면 어떤 제재조치도 병행하는등 업계가 살아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의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 등 입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고품질의 시공풍토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립식 공장 마련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

성해기업은 요즘들어 조립식 공장을 세우기 위해 부지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조립식 공장이라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우선 현 실정에 맞게 반자동 반수동 식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서서히 완전한 조립식공법으로의 전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립식 공법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기술력의 확보 및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서도 앞으로 조립식 공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성해기업은 해마다 직원 가족들과의 단란한 한

때를 보낸다.

가족들이 회사를 알아야 회사를 이해함은 물론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김 사장의 지론 때문이다.

직원 가족중에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직원 가족들에 대한 김 사장의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회사 창립 11년째를 맞는 올해는 이 행사를 다소 크게 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면 이제 그 기업은 사장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고 직원들과 같이 이끌어 가는 회사라는 것이 김 사장의 경영 원칙이다.

따라서 성해기업은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활짝 웃는 김 사장의 미소에서 봄바람의 시샘에도 불구하고 활짝 피어나는 하얀 목련의 모습이 보였다.